농사용 화학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촉구 건의문

의 안 번 호	947

발의일 : 2008. 6. .
발의자 : 박인규의원외 7인

1. **제안이유**

최근 원자재값 인상으로 농사용 화학비료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흔들고 있는 바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2005년도에 폐지 되었던 '비료차손 보전제도'를 부활하라는 취지에서 농림수산 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

2. **주요내용**

○ 최근 농사용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

○ 전 지구적으로 식량파동 위기에 직면하고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음

○ 작년말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80%정도 화학비료값이 오른 것은 농민에게 치명타가 되어 국민의 생명산업이 흔들리고 있음

○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'비료 차손 보전제도'를 부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

3. **관계법령**

○ 지방자치법 제66조

4. **첨 부** : 건 의 문 1부

농사용 화학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촉구

건 의 문

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!

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즈음에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!

국민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장관님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지를 이번 기회에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!

미국의 쇠고기 수입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농사용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.

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국제정세는 급등하는 원유가로 인한 문제가 식량으로 파급되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식량파동 위기에 직면하고 일부 저 개발국가에서는 소요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.

그간 우리나라는 개발논리에 밀려 농업부문은 터부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.

농업인이 감소하고 경작지가 줄고, 쌀이 남아돈다던 몇 년전의 이야기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.

웰빙바람을 타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멀리한 친환경 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골라먹는 시대가 오리라고 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또 한번 요동을 치면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28%,
벼농사를 제외한 밭작물은 5% 미만이라고 합니다.

전 세계적인 식량난은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.

화학비료의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비료값이 작년말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80% 오른 것은 농민에겐 치명타가 되고 있고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

농민이 농토를 떠난다면 지금 쇠고기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.

정부에서는 2005년 폐지된 '비료차손 보전제도'를 부활하여야 합니다.

임시처방식, 땜질식 정책으로는 앞으로 닥쳐 올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.

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!

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량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.

숨통을 조여오는 생명산업을 구제해야 합니다.

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화학비료값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,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.

바라건데,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'비료차손 보전제도' 를 부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.

2008. 6.

충주시의회 의원일동